

미식 관광프로그램 리더 모집

관광자원·미식산업 결합 고부가가치 창출

미식·여행기획으로 나눠 리더 모집 중



전남 보성군이 인지도는 낮으나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며 지역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투어디렉터 콘퍼런스'를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성의 숨은 관광명소에 보성 특산물과 음식 자원이라는 미식 체험으

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 운영 주체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가을 시범운영하여 언론 및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끈 '달콤 테이스티(tea) 로드', '만추의 숲은 관광명소에 보성 특산물과 음식 자원이라는 미식 체험으

관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민이 역량을 갖추어 실제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12월 기간 내 총 4 회로 운영하며, 지역 투어 상품 기획과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미식 체험 관련 팸파티 실습, 지역민 주도의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미식과 여행 기획이며 미식 분야는 보성 특산물 및 특화음식을 관광객에게 알리는데 강점이 있는 관련업체 종사자 및 지역주민, 여행 기획 분야는 잠재력 있는 강소형 관광지를 대상으로 미식 체험을 연계하여 투어를 기획하고 운영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12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해남군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해남군 '땅끝해남 청정마을 융복합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은 3개년에 걸쳐 연구용역, 브랜드개발, 향토자원 권리와 등 사업과 함께 시설, 장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해남마을의 생산(1차)·가공(2차)·유통(3차) 산업을 연계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네트워킹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마늘종합유통센터·마늘후처리 센터 구축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주산지인 해남 마늘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은 물론 깎마늘 가공 유통 확대 등으로 해남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의 3.1%, 전남 생산량의 17% 를 차지하고 있는 마늘 주산지로 2018년 기준 1만 22ha 재배면적에서 1만 220톤을 생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국 최대 생산 채소류 품목의 하나인 마늘 산업의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지역 내 연관 산업까지 파급되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에 맞는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는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서명환 기자

한전공대 설립 위한 위원회 출범

세계 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대학인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의 '법나주시민 지원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9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한전공대 설립 법나주시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이만준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명수 도의원, 신정훈 균형위 지역정책 및 공약특별위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최성진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 최일 동산대총장, 김형배 고구려대 총장, 지원위 임원 및 관계자, 언론인, 시민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위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 위원 59명, 고문 20명, 읍·면·동 지위단 40명 등 총 119명으로 지역 대학교 총장, 교수, 시의원, 연구원, 기업대표, 향우회장, 사회단체, 주민대표, 저명인사 등이 각각 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찬용 전)청와대

인사수석, 이건설 동신대교수가 부위원장은 문재주 에너지밸리리화학융합원장, 여성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총괄지원 △대학설립 지원 △클러스터 조성 지원, 3개 분과로 세분화시켜 분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위는 한전공대 설립 및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민 홍보 활동을 골자로 한전공대와 연계 대학 간 공동연구 및 협력, 기업 간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총괄지원분과는 한전공대 설립 당위성 홍보,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대학설립 지원분과는 대학설립·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요청 등 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어 클러스터 조성 지원분과는 연구소 및 기업유치, 대형연구소실증장기 구축계획의 국가정책 반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은 지원위 임원선출 등 1부 사전회의를 거쳐 지원위 출

범 및 추진경과 영상상영, 임원진 위촉장 수여, 한전공대 마스터플랜 보고, 선포식 등 2부 출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한전공대 유치 확정 후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법인 설립, 법 제·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2022년 3월 정상개교까지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와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한전공대를 주축으로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 도시로 구현하고 다가오는 혁신도시 시너지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12만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천 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클러스터는 인근 농지로 예정 되어 있다.

충의공 최경희 선생 호국정신 선양회, 신임 회장 취임

박상수 신임 선양회장



화순군은 지난 6일 선양회 회의실에서 충의공 최경희 선생 호국

정신 선양회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대 회장에 취임한 박상수 회장은 선양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임호환 회장의 뒤를 이어 3년간 선양회를 이끈다.

취임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선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 취임식과 함께 선양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백일장 대회와

추모제 등 사업 집행 결산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충의공 최경희 선생은 화순의 이름을 빛낸 호남 의병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선양회가 백일장 대회와 추모제 등 선조들의 충정과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젊은이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환경 살리고 경관 가꾸는 '일석이조'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담양 대전면, 5개 마을에 '폐농약병수거함' 설치



담양군 대전면에서 지난 9일 주

민세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신남마을을 포함한 5개 마을에 폐농약 병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농가와 비농가들의 폐농약병이 무분별하게 처리돼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만연해 주민

들이 이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결정 사업이다.

이번 대전면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에서 만든 수거함은 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아 자체 제작했다.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설치되는 곳에 어울리는 예쁜 조형물로 마을 경관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담양=박종영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